

오피니언

다산포럼

김태희



도대체 어찌하면 새로운 수 있을까? “옛것을 배우되 새롭게!” 이른바 ‘법고창신론(法古創新論)’을 주창했던 연암 박지원이 안의 현감으로 부임했다. 고을에 부임해서 보니, 정당(正堂) 근처에 버려진 관사가 있었다.

스포르츠에서 이런 사례는 많다. 감독이 새로운 선수 두어 명을 추가하고 포지션을 약간만 바꾸어도, 팀은 전혀 새로운 팀으로 거듭날 수 있다. 과거 히딩크 축구도 그 일례였다.

새로운 정치를 보고 싶다

아진다. 그만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 정치도 새로워질 수 없을까?

집권 여당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것을 보면, 집권기간에 대해서 스스로 낮게 평가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자 한다는 것을 알겠다. 아담이 ‘민주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꾼 것을 보면, 아담이 통합한 하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겠다. 두 당의 행태에서 민심의 향방을 엿볼 수 있다. 우리 국민이 새로운 정치, 통합의 정치를 바란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뿐만 살짝 바꾸어 새로운 수 있다면 더 말할 게 뭐 있겠나. 당명에 통합을 넣어 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면 어려울 게 뭐 있겠나. 새로운 정치는 정당이 새로워진 데서 비롯된다. 정당의 새로움은 새로운 선수가 추가되고 진영이 새롭게 재구성될 때 기대할 수 있다. 우리의 정당들은 과연 새로워졌는가?

과거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서두른 것은 정치전략상 통합에 미이너스였다. 경제학의 기본 내용인 비교우위에 입각해볼 때, 양국이 전체적으로 상호이익이라지만 그 전에 당장 산업경쟁력에

장은 반대로 바뀌었지만 오히려 다했다. 여전히 통합에 역행하는 정치전략이라는 점과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주는 점에서 그렇다. 새누리당의 대응 역시 마찬가지다.

그 사이에 민주주의의 근간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이 밀려나고 있다. 혹자는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등에 대해 왜 정치권과 언론이 가볍게 다루며 볼만이다.

선거 때 유권자가 당혹스러운 것은 투표할 때가 없는 경우이다. 경제적 문제에 대해 불만인 유권자들이 집권당을 심판한 결과, 여야가 번갈아 집권하는 현상을 ‘진자 효과(pendular effect)’라 한다.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게 그저 선거 때마다 집권당에 대한 심판만 되풀이한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바뀌었지만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는 낡은 것에 지칠 뿐이다.

정당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를 제기하여 다수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통합은 다수의 참여와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일부를 바꾸더라도 확연한 자기 색인을 도모하는 정당을 보고 싶다. 정치의 계절, 새로운 정치를 보고 싶다.

<다산연구소 연구위원>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적조 확산 양식어장 대책 마련 시급하다

한동안 잠잠하던 적조가 전남 해역에 출현, 양식어장 피해가 발생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지난 1995년부터 거의 매년 발생해 피해를 입던 적조가 지난 2008년 이후 종적을 감춘 듯했으나 4년 만에 다시 나타나 어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6일 여수시 화정면 개도 인근 해역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했다. 경남 남해에서 시작된 적조가 전남까지 여수 돌산읍 동쪽 바다에만 발견됐으나 이날부터 서쪽 해역까지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해역에는 적조생물이 250~3천 960 cells/ml의 고밀도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온도 섭씨 25.4~26.5도의 고수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고히 해역과 여수시 화정면에 주의보가 내려지고 여수시 남면 해역에도 고밀도 적조피가 발견되고 있어 서쪽 해역도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일 여수시 돌산읍 박모씨의 육상 양식장에서는 바다에서

끌어들인 해수로 인해 돌돔 8만6000여 마리가 적조로 집단 폐사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유해성 적조는 1995년부터 거의 매년 발생했다. 특히 전남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여파류 2190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모두 454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적조는 바다물의 부영양화가 수온상승에 따라 유독성 플랑크톤을 증가시켜 어패류를 폐색시키는 무서운 재난이다. 부영양화는 주로 생활오수와 공장 및 농·축산 폐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적조야말로 환경오염의 엄포인 셈이다.

적조 대책은 결국 바다오염을 막는 일이다. 생활오수와 공단폐수로부터 바다의 오염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황토살포에 의존하고 있는 방제 도 전적용 이용한 퇴적 등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어민들 역시 밀식양식이나 먹이 과다투여 행위를 금하는 등 바다오염 방지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폭염 속 전력 비상, 節電 경각심 가져야

6일 오전 11시 5분 전력거래소가 전력경보를 발령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의 예비전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경보가 잇달아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5일 오후 9시를 기해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최대 수요전력이 497만kW를 기록, 지난해 최대치인 479만kW를 경신했다. 이로 인해 광주 시내 일부 아파트와 상가가 과부하로 정전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전국적으로 6일 오전 11시5분 예비전력이 300만kW 미만으로 10분 이상 지속되자 전력거래소는 전력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였다. 이날 오후 예비전력은 310만kW 선으로 늘었지만 주의 경보는 유지되고 있다. 주의가 발령된 것은 작년 9·15 정전사태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전력수요가 통상적인 패턴을 벗어났고 수요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예비 전력이 100만kW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밝힌 전력대란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폭염이 이번 주까지 예고되고 있어 긴급한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무엇보다 원전 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상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100만 kW급 원전 1기만 멈추어도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난다. 지난해 여름 잠깐의 정전사태에도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야외장 물고기 폐사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에너지 절약은 이제 필수다. 행인도 없는 소원도에 밤새 불을 켜두거나 문을 열어 놓은 채 에어컨을 켜놓고 일하는 곳도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절반 이상을 멈추고도 목표했던 절감량(15%)을 넘어선 22%를 절약했다. 폭염에도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한 국민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국민 스스로 전기 절약을 생활화해야 하는 이유다.

네팔에서 온 편지 (21)



박행순

네팔의료심의위원회에서는 매년 각 의과 대학에 평가 요원들을 보내서 교육시설, 교육과정, 교수요원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고 모든 교수들을 개별 면담을 통하여 확인한다. 그 결과는 다음해의 학생 모집에 영향을 끼쳐서 기준에 미달되면 정원을 줄인다고 했다.

나는 올 12월 말까지 객원교수로서 1년 계약을 맺었지만 7, 8월에 일시 귀국을 하기로 대학 측에 양해를 구했다. 7월 말에 중국 연변의 조선족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한·중 청소년 과학캠프를 열기로 일 년 전에 연변 측과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작년까지 5년 동안 ‘광주전남 여성과학

청소년 과학캠프

출인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연변의 조선족 소학교에서 과학축제와 과학 시범 수업 등을 진행하였다. 올해에는 우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대신, 조선족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 10명과 교사 두 사람을 초청하였다. 광주에서의 모든 경비는 우리 측에서 부담하지만 항공료 등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교사들은 출장비를 지원받았고 어린이들은 100만 원씩을 냈다고 했다. 참가자 열 명 중 다섯 아이는 한국에 얼마나 부모가 일하러 와 있는지 이산가족 재회 기회가 되었는지 이번 행사의 의의가 크다고 연변 측 관계자가 말해 주었다.

이행은 과천과학관과 화성시문화재단을 거쳐 일정의 절반인 3박 4일을 광주에서 보내기 위하여 밤늦게 도착했다. 다음날 아침 엑스포 관람을 위하여 여수에서 마산이 어린이들은 별로 피곤한 기색도 없이 마산 행복해 보였다. 여러 시간의 지루한 기다림도 잘 참아내고 마지막 빅오까지 보고 밤 12시가 가까워져서 돌아왔다.

따라 이익 보는 사람들과 손해 보는 사람들로 나뉜다.

요즘 상황으로는 대체로 경제적 감자가 이익을 보고, 경제적 약자가 손해를 본다.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약자는 정부를 믿기 어렵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국익을 말하거나 개방을 통해 개혁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민중통합당은 구성원 다수가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었는데도 태도를 바꾸어 한·미 FTA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조했다. 우리 모두의 갑탄을 자아냈다. 중국 특유의 발표 문화 속에서 어린이들은 평소 훈련이 잘 된 것 같았다.

반면, 미국 교포를 포함한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기니피그’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통역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등, 창의성이 돋보이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좋았지만 목소리가 작고 이야기하듯 발표를 했다.

연변 어린이들의 끈뀁한 인사 예절과 점심시간에 어른들에게 물을 떠다 주는 것 등이 눈에 띄었다. 발표 태도, 인사성, 남에 대한 배려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연변 어린이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을 것이다. 연변 어린이들은 우리 쪽 포레로로부터 생각의 다양성, 창의성을 배웠을 것이다.

내년에는 네팔 어린이들과 과학캠프에 초청하고 영어로 진행해도 될 것 같다. 그때는 민중 문화 탐방과 포레들의 교류 증진을 위하여 민박도 적극 추진해 계획이다. 네팔 어린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들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경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등 벌써부터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

우리 모두의 갑탄을 자아냈다. 중국 특유의 발표 문화 속에서 어린이들은 평소 훈련이 잘 된 것 같았다.

반면, 미국 교포를 포함한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기니피그’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통역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등, 창의성이 돋보이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좋았지만 목소리가 작고 이야기하듯 발표를 했다.

연변 어린이들의 끈뀁한 인사 예절과 점심시간에 어른들에게 물을 떠다 주는 것 등이 눈에 띄었다. 발표 태도, 인사성, 남에 대한 배려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 어린이들은 자연스럽게 연변 어린이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웠을 것이다. 연변 어린이들은 우리 쪽 포레로로부터 생각의 다양성, 창의성을 배웠을 것이다.

내년에는 네팔 어린이들과 과학캠프에 초청하고 영어로 진행해도 될 것 같다. 그때는 민중 문화 탐방과 포레들의 교류 증진을 위하여 민박도 적극 추진해 계획이다. 네팔 어린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들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경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등 벌써부터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

<피터의대 객원 교수·전남대 명예교수>

기고

극장의 여자화장실이 북적이는 이유



최순애

일상에서 극장이나 백화점, 공연장 등에 가면 왜 여자 화장실만 사람이 많고 길게 줄을 서 불편한지에 대해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러려니 하고 의식조차 한 적이 없는가? 이 질문에 심도 있게 접근해서 건물 내에 있는 남녀 화장실의 변기와 면적에 대한 통계를 산출해 보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남자 화장실에는 소변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좌변기밖에 없다. 게다가 좌변기는 남성 소변기보다 필요한 공간이 더 크다.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는 것은 주로 여성일 경우가 더 많고

여성 화장실 체류시간이 남성보다 길고 횡수도 잦다. 이러한 이유들로 자연스럽게 여자 화장실의 변기수와 면적이 동일하다면 여자 화장실은 당연히 북적게 된다.

버스나 지하철 손잡이도 마찬가지, 처음 그 높이의 기준은 평균 167cm 키를 가진 사람 기준으로 설계되어 만들어졌다. 그러나 167cm는 성인 남성들이 이용하는 가장 편한 높이이고 이는 여성이나 어린이가 혹은 평균보다 작은 키의 남성은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차이와 다양성을 배제하고 전체 평균에 의해서만 만들어져 있고 지금까지 그 기준의 대부분은 성인 남성인 경우가 많았다.

그럼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 사회문화적 위치, 경제적 위치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을 펴면 된다.

예를 들어 화장실은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빈도를 측정하여 적절한 비율이 되도록 설계하고 버스 손잡이는 남성과 여성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높이를 측정하여 다양하고 적당한 높이로 세분화하고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기동 손잡이를 곳곳에 배치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져 왔다. 전남도는 청사 내 남녀 화장실 이용 평균시간(여성 2분 30초·남성 1분 24초)을 고려해 여성화장실 변기 수를 늘렸고 서울도시철도공사도 기존 승인남성들의 평균 신장에 맞춰 설계된 지하철 손잡이를 높낮이 10cm 차이로 번갈아 설치하고 의자 중간에 기동을 세워 서있는 승객의 불편을 개선하였다.

있고, 남자는 적당한 취해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거기다 대리운전자가 손님에게 합부로 했다가는 회사에서 해고당할 것 같으니가 웬만하면 참는 수밖에 없다는걸 악용하는 것이다.

심야시간대의 일부 만취 남성 취객들이

생업전선에 나선 여성 대리운전자를 괴롭게 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다.

한편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일선에 나선 연약한 여성들에게 술 좀 마셨다는 핑계로 이 같은 짓을 하는 행위는 삼가야 할 것이다.

▲김기원·광주시 서구 세하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내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취한 승객들 여성대리운전자에 성적 놀림 삼가야

아이들 돌이나 둔 친 누님이 서너 달 전부터 대리운전을 한다며 밤에 일을 나갔다. 매형이 직장을 잃은 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취업 안 되고, 결국 애들 학비가 여의치 않아 누님이 궁여지책으로 한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옛그제 누님이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다. 만취한 남자 승객을 태우고 가던 중이 남자 승객이 성적 농담을 하면서 치근덕거리더라는 것이었다. 누님은 한두 번 당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 결국은 너무나 화가 나서 도중에 내려놓고 와버렸다는 것이다.

물론 대리운전회사에서는 그 날짜로 해고 당했다며 동생인 내게 이럴 수 있는냐고 하소연하는 전화는 한 것이었다. 사실 여성운전자가 받들게 대리운전하는 것 자체가 이 같은 성적 농담이나 성추행을 당하기 쉬운 상태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다.

깊은 밤에, 좁은 차 안에서 나란히 앉아